

자연과 벗하며 상상의 나라를 떠다

상상력은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꿈을 꾸는 것은 무한한 자유의 영역이다. 어린 시절은 5대양 6대륙을 탐험하거나 우주로 날아가는 꿈을 꾸기도 한다.

자연과 벗하며 상상력의 나라를 떠는 것은 어린이의 특권이다. 자연환경이 주는 순수한 세계는 때가 묻지 않은 유년시절의 모습과 유사하다. "어린이는 어른의 미래다"라는 말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상상력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시립미술관(관장 윤익) 어린이 갤러리.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 중인 기획전 'ECHO: 상상력과 자연을 잇다'는 말 그대로 상상력과 생태적 환경을 접목했다.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 상상으로 배치한 다양한 자연의 공간과 마주한다.

일반적으로 울림, 메아리라는 뜻의 '에코'(ECHO)는 예술을 매개로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알린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참여 작가는 모두 7인. 거니림 작가를 비롯해 김안나, 김자영, 무라타 치아키, 박유진, 한진희, 허달재 작가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존재하고 공존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숙고하는 작품을 출품했다.

윤익 관장은 "전시실에서 마주하는 작품들은 체험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일상에서 무시코 지나치기 일쑤인



▶자연의 재료로 '매화'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광주시립미술관 'ECHO' 전 4월 27일까지 어린이 갤러리 생태 모티브...자연 가치 탐색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환기하고 그 가치를 생활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니림 작가는 가로수의 껍질을 주제로 작품을 형상화했다. 알맹이와 내용물은 쓰임을 받지만 '껍질'은 버려지는 현실에서 작가는 '껍질'로 대변되는 자연의 소중함을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과연 껍질은 쓸모없는 것인지, 작품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한진희 작가의 '어느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는 화제가 도발적이지만 그만큼 현대인들을 향해 강한 경종을 울린다. 작가는 논과 밭에서 볼 수 있는 썩지 않는 비닐과 친환경 소재인 종이를 대조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편리와 문명에 길들여져 있다. 대조된 작품을 보고 나면 오늘의 선택이 결국 농촌의 내일은 물론 우리와 후손들의 식탁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미디어아티스트 김안나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 OPIM'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미래의 환경을 세



김안나 작 '보이지 않는 도시들:OPIM'



김자영 작 '엇갈린 시선'. <시립미술관 제공>



"소중한 자연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요"

▲무라타 치아키 작 '희망의 촛불'

롭게 구성해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김자영 작가의 '엇갈린 시선'은 아프리카에서 자라나는 스투키라는 식물을 토대로 생태 환경의 중요성,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예술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촛불을 켜는 행위를 전시장 안에 구성된 일본 디자이너 무라타 치아키의 '희망의 촛불'은 전시의 주제를 심화한다.

박유진 작가와 에쓰스크리에이티브(주)의 협업 작품인 '새들이 함께 노래하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을 매개로 관람객의 동작과 새들의 움직임 연계를했다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옷칠 등 천연재료를 활용해 표현한 허달재 작가의 '매화도'가 주는 깊은 감성을 비롯해, 모리리파이버코리아(주), 스테리, ㈜세이브어스 등의 기업들이 협업으로 풀어낸 '에코 소재랩'이 환기

하는 의미도 접할 수 있다.

한편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알록달록, 꽃과 새 깃털을 만들어요'와 '자연의 재료로 매화도 만들기'(각각 매주 토요일 11시, 오후 1시)도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신청은 수업당일 선착순 5명 현장접수. 자세한 내용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울' 끝에 마주하는 새 희망

덴마크 SF·스릴러 '멜랑콜리아'
광주극장, 28일 종영 이벤트

"세상의 끝이 아닌 아름다운 종말의 시작." 광고계 라이징 스타 저스틴(커스틴 던스트 분)은 완벽한 결혼식을 꾸무고 있던 예비 신부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망쳐버린 결혼식은 그녀를 더 큰 수렁으로 몰아넣고, 상태가 심각해진 뒤 언니 클레어(샤를로트 갱스부르)의 저택에 머물며 보살핌을 받는다.

한편 지구에 '멜랑콜리아(우울)'라는 푸른 빛의 거대 행성이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다. 두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멜랑콜리아는 어느덧 눈앞에 도달하는데...

광주극장이 영화 '멜랑콜리아' 종영 이벤트를 28일 오후 7시 20분 극장에서 연다. 관람 관객들에게 인터내셔널 버전의 특별 포스터를 예매 선착순(은·오프라인) 20인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영화는 생소할 수 있는 덴마크 SF·스릴러를 기치로 내걸지만, '우울과 황홀함의 충돌'이라는 주제는 내밀한 감정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 낸다. 2012년 5월 첫 개봉한 뒤 다시 극장가를 찾아왔으며 '시빌 워' 등에서 얼굴을 알린 커스틴 던스트가 주역.

작품은 제64회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24회 유럽영화상 유러피안 작품상과 촬영상, 미술감독상 등을 석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제46회 전미비평가협회상에서 작품상 등을 받으며 예술적인 성

취를 인정받았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영화 속에서 종말을 앞두고도 이성을 유지하던 클레어는 점차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우울해 하던 저스틴은 점차 평온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얼핏 비극적인 시놉시스로 보일 수 있지만 저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주인공들 모습은 여운을 남길 것이다"고 했다.

성인 1만 원, 디트릭스 예매(15세 이상 관람가)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ACC 어린이 공연 참여 문화예술 기관 공모

ACC재단 3월 14일까지

인형극 '깡깡나무',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환경 연극 '어디로 가야 하지?'

위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창작작 어린이 공연 작품 가운데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다.

'깡깡나무'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져버린 '깡깡나무'를 찾으러 떠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중앙아시아 설화를 원작으로 제작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 재단)은 ACC 창작작 어린이 공연 유통에 참여할 문화예술기관을 공모한다. 3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ACC 창작작 어린이 공연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우수한 콘텐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 작품은 인형극 '깡깡나무',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환경 연극 '어디로 가야 하지?' 등 세 편이다.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는 오랫동안 전승돼 온 지혜의 책, 영웅 등 아시아의 보물들을 어린이 뮤지컬로 만들었으며 말레이시아 그림동화 '코끼리 동산'을 원작으로 한 '어디로 가야 하지?'는 무분별한 개발이 낳는 폐해를 고발하고



'어디로 가야 하지'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ACC재단은 심사를 통해 6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일부 경비와 공연 운영 및 홍보 등을 담당하면 된다.

오현화 팀장은 "이번 공모는 ACC 어린이 공연 창작작 작품 가운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을 유통할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유통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 출신 스윙댄서 티씨, '상하이 린디 페스티벌' 수상

전남 여수 출신의 댄서 류태경(활동명 티씨) 씨와 소속 팀이 최근 스윙댄스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다.

댄스팀 '상하이 트랭키두'는 작년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린디 페스티벌(SLF)'에서 쇼케이스 부문 3등을 수상했다. 상하이 트랭키두는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팀으로,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스윙댄서들로 구성됐다.

이번 경연에서 트랭키두는 한국 가요 '사랑의 트루스트'를 재즈 버전으로 편곡, 직접 노래를 곁들였다. 스윙댄스의 하위 장르인 린디합과 솔로 재즈 장르를 섞은 안무를 창작해 공연을 펼쳤다.

편곡과 보컬을 맡은 댄서 티씨는 "국제 대회에서 직접 만든 노래와 안무로 공연할 수 있어 감회가 깊었는데 수상까지 이어져 영광이다"며 "중국의 대표적 국제 스윙댄스 행사 중 하나인 SLF에 앞으로

도 지역 댄서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